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4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4

문 1.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술탄의 여름궁전이자 전원생활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세로 델 솔(Cerro del Sol)의 급경사지에 자리하고 있고 아세퀴아 중정(수로의 중정)과 술탄의 중정(사이프러스 중정) 등이 조성되어 있다.

① 돌마바흐체 궁전(Dolmabahce Palace)
② 알카자바(Alcazaba)
③ 이졸라 벨라(Isola Bella)
④ 헤네랄리페(Generalif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슬람계 정원의 고유 공간 구성과 명칭을 보고 해당 유적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헤네랄리페는 그라나다 알람브라와 마주한 세로 델 솔의 비탈에 조성된 나스르 왕조의 여름 별궁 정원이다. 대표 공간은 아세퀴아 중정과 술탄의 중정으로, 수로와 사이프러스 정원이 식별 단서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돌마바흐체 궁전은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연안의 오스만 궁전이다. 틀린 표현은 헤네랄리페의 입지와 중정 구성을 돌마바흐체 궁전에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보스포루스 연안의 19세기 오스만 궁전으로 보아야 한다.
2번 X: 알카자바는 일반적으로 성채 또는 요새를 뜻하는 방어 시설이다. 틀린 표현은 여름궁전과 아세퀴아 중정, 술탄의 중정을 알카자바의 특징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군사적 방어 기능이 중심인 성채로 이해해야 한다.
3번 X: 이졸라 벨라는 이탈리아 마조레호의 섬 정원 별궁으로 바로크식 테라스 정원으로 유명하다. 틀린 표현은 나스르 왕조의 수로 중정과 사이프러스 중정을 이졸라 벨라의 특징처럼 제시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탈리아 호수 위의 섬 정원 별궁으로 구별해야 한다.
4번 O: 헤네랄리페는 술탄의 여름 궁전이자 전원 거주 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로 델 솔의 급경사지에 자리한다. 아세퀴아 중정과 술탄의 중정은 헤네랄리페를 식별하는 대표 공간이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해외 정원·궁전 이름이라 낯설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제는 개별 명칭을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세퀴아 중정, 술탄의 중정, 세로 델 솔이라는 고유 단서를 헤네랄리페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명과 공간 명칭을 먼저 본다. 그라나다, 세로 델 솔, 아세퀴아, 사이프러스 중정처럼 이슬람계 스페인 정원의 단서가 나오면 헤네랄리페를 우선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헤네랄리페 = 그라나다의 나스르 왕조 여름별궁 + 아세퀴아 중정 + 술탄의 중정이다.

NoteBase

문 2.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알베르카 중정(Patio de la Alberca)은 장방형의 연못 양쪽에 도금양이 열식되어 있다.

② 사자의 중정(Patio de los Leones)은 12마리의 사자가 수반을 받치고 있다.

③ 린다라야의 중정(Patio de la Lindaraja)은 중앙에 위치한 분수를 교차하는 십자 형태의 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④ 레하의 중정(Patio de la Reja)은 자갈 무늬 포장이 되어 있으며, 사이프러스 4주가 식재되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알함브라 각 중정의 공간 구성, 수경 요소, 식재 특징을 서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베르카 중정은 코마레스 궁의 중심 중정으로 긴 직사각형 연못과 장변의 도금양 생울타리가 핵심이다.
사자의 중정은 중앙의 사자분수와 십자형 축 구성이 핵심이다.
린다라야의 중정은 다락사 정원이라고도 하며 폐쇄된 중정 안에 중앙 분수와 식재 공간이 놓이는 것이 핵심이다.
레하의 중정은 르네상스 시기 성격이 강한 작은 중정으로 중앙 분수와 자갈 무늬 포장, 네 모서리의 사이프러스가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알베르카 중정은 긴 장방형 연못을 중심에 두고 그 장변을 따라 도금양이 배치된 공간이다. 이 중정은 실제로 코마레스 궁의 중심축과 반사 연못, 도금양 생울타리로 기억하는 것이 맞다.
② O 사자의 중정은 중앙 분수의 수반을 12마리의 사자 조각이 받치고 있는 것이 대표 특징이다. 선지의 핵심 표현인 '12마리의 사자'가 정확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앙에 위치한 분수를 교차하는 십자 형태의 수로'이다. 십자형 축과 중앙 분수의 조합은 사자의 중정 쪽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린다라야의 중정은 폐쇄된 정원형 중정에 중앙 분수와 식재가 놓이는 공간이다.
④ O 레하의 중정은 중앙의 작은 분수, 자갈 무늬 포장, 네 모서리의 사이프러스 식재로 알려진다. 따라서 자갈 무늬 포장과 사이프러스 4주라는 설명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자의 중정 특징인 십자형 축 구성을 린다라야의 중정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알함브라의 여러 중정은 모두 물과 식재를 갖지만, 어떤 중정이 반사 연못형인지, 어떤 중정이 중앙 분수형인지, 어떤 중정이 십자 축인지가 서로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알함브라 중정 문제는 먼저 중심 수경 요소를 본다. 긴 직사각형 연못이면 알베르카 중정, 12사자 중앙분수와 십자 축이면 사자의 중정, 폐쇄된 정원형 중앙분수면 린다라야의 중정, 자갈 무늬 포장과 사이프러스 네 그루면 레하의 중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알베르카는 긴 연못, 사자는 12사자 분수, 린다라야는 폐쇄 정원, 레하는 자갈 포장과 사이프러스 4주이다.

NoteBase

문 3. 르 노트르 양식에 있어 장식화단(parterre)의 세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수화단 - 회양목을 열식하고 전정하여 마치 수를 놓은 듯한 화단으로 꽃이나 잔디를 식재하기도 함
ㄴ. 영국화단 - 단순한 잔디밭이나 어떤 형태를 그려 놓은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화단으로 원로에 의해 둘러싸이고, 원로 밖은 화초를 식재함
ㄷ. 물화단 - 잔디와 화단 등에 둘러싸인 분천지가 여러 개 조직되어 이루어진 화단
ㄹ. 대칭화단 - 모든 부분이 회양목을 다듬어 만들어 놓은 대칭형 무늬로 구성된 화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르 노트르 양식의 장식화단 세부 유형을 정의와 구성 요소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수화단은 회양목을 낮게 전정해 자수 같은 무늬를 만드는 화단이다. 영국화단은 단순한 잔디판을 중심으로 하고 그 둘레에 원로와 화초 식재를 두는 형식이다. 물화단은 분수나 수반 같은 물 요소를 여러 개 조직해 구성한 화단이다. 대칭화단은 좌우 대칭과 기하학적 배치가 핵심이지, 모든 부분을 회양목 다듬기로만 채우는 화단이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 ㄴ, ㄷ만 고른 조합이다. ㄱ의 자수화단 설명은 회양목 전정과 자수 같은 무늬라는 점에서 옳다. ㄴ의 영국화단 설명도 단순한 잔디판과 외곽 화초 식재라는 점에서 옳다. ㄷ의 물화단 설명 역시 물 요소를 여러 개 조직한 화단이라는 뜻이므로 옳다. ㄹ은 틀리므로 이를 제외한 1번이 정답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ㄹ을 옳다고 묶은 점이다. ㄹ의 '모든 부분이 회양목을 다듬어 만들어 놓은 대칭형 무늬'는 자수화단의 성격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대칭화단을 좌우 대칭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ㄹ은 제외되어야 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옳은 ㄴ을 빼고 틀린 ㄹ을 넣은 점이다. 영국화단은 단순한 잔디판 중심에 원로나 외곽 화초 식재를 두는 형식이므로 ㄴ은 옳다. 반대로 ㄹ은 대칭화단의 정의를 회양목 자수무늬 화단으로 바꾸어 놓아 틀리다.
4번 X: 틀린 부분은 옳은 ㄱ을 빼고 틀린 ㄹ을 넣은 점이다. 자수화단은 회양목을 열식하고 전정해 수를 놓은 듯한 무늬를 만드는 화단이므로 ㄱ은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ㄹ을 포함하는 조합이 아니라 ㄱ, ㄴ, ㄷ을 포함하는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자수화단과 대칭화단을 같은 말처럼 받아들이면 ㄹ에 속기 쉽다. 회양목을 다듬어 자수 같은 무늬를 만든다는 설명은 자수화단의 특징이고, 대칭화단은 그보다 넓게 좌우 대칭의 배치 원리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부 유형 문제는 먼저 대표 키워드를 대응시키면 된다. 자수화단은 회양목 전정과 자수무늬, 영국화단은 단순 잔디판과 외곽 화초, 물화단은 분수·수반 같은 물 요소, 대칭화단은 좌우 대칭 배치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수화단은 무늬, 영국화단은 잔디, 물화단은 분수, 대칭화단은 좌우 대칭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4. 영국의 스토우 가든(Stowe Garden)은 18세기 당대의 유명한 정원가들에 의해 조성되고 몇 차례 개조되었다. 조성 및 개조에 참여한 풍경식 조경가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Capability Brown – William Kent – William Chambers
②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 – Humphry Repton
③ William Kent – Charles Bridgeman – William Chambers
④ Charles Bridgeman –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토우 가든 조성에 참여한 대표 조경가들의 시간 순서와 양식 전환의 흐름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Charles Bridgeman - 초기 조성 단계에서 정형적 구성과 공간 골격을 잡은 인물이다.
2. William Kent - Bridgeman 이후 보다 자연화된 풍경식 구성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3. Capability Brown - Kent 이후 자연풍경식 경관을 한층 넓고 유기적으로 다듬은 인물이다.

왜 이 순서: Bridgeman이 먼저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Kent가 자연화 경향을 강화했으며, 이어 Brown이 풍경식 경관을 심화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Capability Brown은 Stowe의 후반 단계 조경가이므로 William Kent보다 앞설 수 없다. William Chambers도 Stowe 가든의 대표 조성 순서에 넣는 인물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Capability Brown - William Kent - William Chambers"이다. 올바르게는 "Charles Bridgeman -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이다.

② X: William Kent는 Charles Bridgeman 다음 단계의 인물이지 첫 단계가 아니다. Capability Brown은 Kent 뒤에 오며, Humphry Repton은 Stowe의 대표 3단계 조성 순서를 이루는 인물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 - Humphry Repton"이다. 올바르게는 "Charles Bridgeman -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이다.

③ X: Charles Bridgeman이 William Kent보다 먼저 참여하였다. William Chambers 역시 Stowe 가든의 대표 조성 순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William Kent - Charles Bridgeman - William Chambers"이다. 올바르게는 "Charles Bridgeman - William Kent - Capability Brown"이다.

④ O: Charles Bridgeman, William Kent, Capability Brown의 배열은 Stowe 가든 조성 및 개조의 대표적 시간 순서와 일치한다. 초기 구성, 자연화, 풍경식 심화의 흐름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William Kent와 Capability Brown의 선후를 뒤집거나, William Chambers와 Humphry Repton처럼 다른 정원사 이름을 Stowe의 대표 조성자 명단에 끼워 넣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인물의 유명세보다 Stowe에서의 실제 선후관계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국 풍경식 정원 문제에서 Stowe가 나오면 먼저 Charles Bridgeman의 초기 조성, 다음 William Kent의 자연화, 마지막 Capability Brown의 완성 순서로 잡으면 된다. 선택지에 Chambers나 Repton이 보이면 Stowe의 대표 조성 순서에 들어가는지부터 걸러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스토우 가든은 브리지먼에서 켄트를 거쳐 브라운으로 간다. 초기 골격-자연화-풍경식 완성의 흐름으로 기억된다.

NoteBase

문 5. 19세기 말엽 도시 소주택 정원의 보급과 관련한 조경가들의 움직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룸필드(Reginald T. Blomfield)는 풍경식 정원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으며, 소주택 정원이 건축적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② 배리(Charles Barry)는 섬세한 감각과 생태학적 관심의 결합을 통해 정원을 조성하였다.

③ 로빈슨(William Robinson)은 자연주의적 정원 디자인의 선구자로, 야생 정원(Wild garden) 개념을 도입하였다.

④ 거투르드 지킬(Gertrude Jekyll)은 월 가든(wall garden), 워터 가든(water garden) 등 소주택에 어울리는 정원 양식이나 색채적인 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세기 말 영국 소주택 정원 보급기 조경가들의 대표 성향과 저작·양식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블룸필드: 건축적·정형적 정원 옹호, 풍경식 정원의 비합리성 비판으로 연결된다.
찰스 배리: 건축가로서 테라스와 이탈리아식의 건축적 정원 구성과 연결된다.
윌리엄 로빈슨: 자연주의 정원과 야생 정원 개념을 확산한 인물로 연결된다.
거트루드 지킬: 색채 감각, 식재 디자인, wall garden·water garden 등 소주택 정원 양식의 세련된 전개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블룸필드는 풍경식 정원의 느슨함과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정원을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정형적 공간으로 보았다. 소주택 정원이 건축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섬세한 감각과 생태학적 관심의 결합"을 찰스 배리에게 연결한 표현이다. 이 성향은 거트루드 지킬 쪽에 가깝고, 찰스 배리는 건축가로서 이탈리아식 테라스 정원 등 건축적 구성과 더 관련된다.
3번: O. 윌리엄 로빈슨은 자연주의적 정원 디자인의 대표 인물이며 Wild garden 개념을 제시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4번: O. 거트루드 지킬은 wall garden, water garden 등 소주택에 어울리는 정원 양식을 발전시켰고, 특히 색채가 살아 있는 식재 구성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찰스 배리와 거트루드 지킬의 이미지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이름은 배리인데 내용은 지킬의 식재 감각과 생태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물과 대표 키워드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인물명만 보지 말고 대표 키워드로 바로 대조하면 풀린다. 블룸필드는 건축적 정원, 로빈슨은 Wild garden, 지킬은 색채 식재와 소주택 정원으로 연결해 두면 섞어 놓은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블룸필드=건축적 정원, 로빈슨=Wild garden, 지킬=색채 식재와 소주택 정원, 배리=건축가의 정원 구성이다.

NoteBase

문 6.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사유지 정원 으로 토마스 제퍼슨이 조성한 정원은?

① 거버너스 팰리스(Governor’s Palace)

② 마운트 버논(Mount Vernon)

③ 몬티첼로(Monticello)

④ 하트필드 하우스(Hatfield Hous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초기 사유지 정원과 그 소유자·조성 주체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거버너스 팰리스: 버지니아 총독 관저에 속한 정원으로, 식민지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공적 공간이다.
마운트 버넌: 조지 워싱턴의 영지이자 정원이다.
몬티첼로: 토머스 제퍼슨이 설계하고 가꾼 대표적 사유지 정원이다.
하트필드 하우스: 영국의 저택 정원으로, 미국 초기 정원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거버너스 팰리스는 버지니아 총독 관저의 정원으로 공적 관저 공간에 가깝다. 토머스 제퍼슨이 조성한 대표적 사유지 정원이라는 연결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미국 초기 대표 사유지 정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몬티첼로이다.
2번 X: 마운트 버넌은 토머스 제퍼슨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의 영지와 정원이다. 틀린 표현은 토머스 제퍼슨과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마운트 버넌은 조지 워싱턴의 정원이다.
3번 O: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의 대표적 사유지이자 그가 직접 설계 의도를 반영한 정원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 사례로 본다.
4번 X: 하트필드 하우스는 영국의 저택과 정원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정원과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토머스 제퍼슨의 대표 정원은 몬티첼로이다.

오답 포인트

미국 초기 대표 정원을 묻는 문제에서 미국 건국 인물 이름만 떠올리면 마운트 버넌과 몬티첼로를 혼동하기 쉽다. 워싱턴은 마운트 버넌, 제퍼슨은 몬티첼로라는 소유자 연결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사 문제에서 인물과 장소를 묶어 기억한 뒤, 그 장소가 공적 관저인지 개인 영지인지부터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워싱턴은 마운트 버넌, 제퍼슨은 몬티첼로이다.

문 7. 일본 에도시대의 영주를 위한 회유식정원으로 중국적인 조경요소인 원월교(円月橋), 서호(西湖), 소려산(小廬山)이 조성된 정원은?

① 소석천후락원(小石川後樂園)

② 겸육원(兼六園)

③ 율림공원(栗林公園)

④ 육의원(六義園)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도시대 대표 정원을 조성 요소와 연결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소석천후락원은 미토 도쿠가와가의 대명정원으로, 광국 시기에 중국 취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원월교, 서호, 소려산 같은 중국계 경관 모티프가 들어간 정원이다.
겸육원은 가나자와 마에다 가문의 정원으로, 이름 자체가 육승을 아울렀다는 뜻을 담는다.
율림공원은 자운산을 배경으로 6개의 연못과 13개의 인공 산을 배치한 회유식 정원이다.
육의원은 와카의 육의에서 이름을 딴 문학적 회유식 정원으로, 시적 경관 재현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소석천후락원은 에도 초기 대명정원 가운데 중국 취미가 두드러지는 정원이며, 문제에 제시된 원월교, 서호, 소려산이 모두 이 정원의 대표적 경관 요소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겸육원을 원월교·서호·소려산의 정원으로 연결한 부분이다. 겸육원은 이러한 중국식 세부 경관으로 외우는 정원이 아니라 육승, 금택성 외원, 고토지등롱 같은 특징으로 식별하는 정원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율림공원을 중국 취미 요소의 정원으로 본 부분이다. 율림공원은 자운산을 배경으로 한 넓은 회유식 대명정원이며, 6개의 연못과 13개의 산경이 핵심이지 원월교·서호·소려산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4번: X. 틀린 표현은 육의원을 중국식 조경 요소 중심 정원으로 본 부분이다. 육의원은 와카의 육의와 88경 재현으로 알려진 문학적 정원이며, 문제의 조성 요소는 육의원이 아니라 소석천후락원의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소석천후락원과 육의원은 모두 에도시대 회유식 정원이고 도쿄의 대표 정원이라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후락원은 중국 취미와 명승 모사, 육의원은 와카와 시적 경관 재현으로 구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문제는 이름보다 표지 키워드로 먼저 분류하면 빠르다. 원월교·서호·소려산처럼 중국 명승 모사 키워드가 나오면 소석천후락원, 육승이 나오면 겸육원, 자운산 배경이 나오면 율림공원, 와카 육의와 88경이 나오면 육의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후락원은 중국 취미, 겸육원은 육승, 율림공원은 자운산, 육의원은 와카 정원이다.

NoteBase

문 8. 이격비의 『낙양명원기』에 소개된 정원이 아닌 것은?

① 충춘원(義春園)

② 귀인원(歸仁園)

③ 한씨원(韓氏園)

④ 독락원(獨樂園)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격비의 『낙양명원기』에 실제로 수록된 정원명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낙양명원기』는 북송 낙양의 명원들을 기록한 글이다. 보기의 판단 기준은 정원명이 원전의 목록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여부이다. 총춘원, 귀인원, 독락원은 원전에 보이지만 한씨원은 보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총춘원(叢春園)은 『낙양명원기』에 실제로 보이는 정원명이다. 따라서 소개된 정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2번 O: 귀인원(歸仁園)도 『낙양명원기』에 보이는 정원명이다. 원문에 귀인은 방(坊)의 이름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수록 여부가 분명하다.
3번 X: 한씨원(韓氏園)은 『낙양명원기』의 수록 정원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낙양명원기』에 소개된 정원'이라는 연결이고, 올바르게는 '『낙양명원기』에 소개되지 않은 정원'이다.
4번 O: 독락원(獨樂園)은 사마광의 정원으로 『낙양명원기』에 별도 항목이 있다. 따라서 소개된 정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한씨원처럼 익숙한 한자식 정원명을 보면 모두 같은 문헌에 실린 것으로 묶어 버리기 쉽다. 이 문항은 이름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수록 여부를 추정하면 틀리도록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원림 문헌 문제는 정원명 자체를 막연히 보지 말고 특정 문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보기 중 실제로 원문 항목이 확인되는 이름과 목록에 없는 이름을 가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낙양명원기』는 총춘원·귀인원·독락원 같은 낙양 명원을 기록한 글이고, 한씨원은 이 문항에서 비수록 정원으로 잡는다.

NoteBase

문 9. 명나라 작원(作園)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북경시 해정구에 위치한 미만종의 원림이다.

② 100묘의 토지에 주덕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였다.

③ 원림 안에는 큰 연못, 정방(定舫), 육절교(六折橋) 등이 있다.

④ 태호석으로 가산을 조성하고 못가에는 양류(楊柳)를 식재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말 문인원림 작원의 위치, 조영 주체, 수경 중심 경관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작원은 북경 해정에 조성된 미만종의 원림으로, 백묘 규모의 수경 중심 문인원림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 버드나무, 태호석, 정방 같은 요소가 작원의 핵심 이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작원은 북경시 해정구 일대에 있었던 미만종의 원림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주덕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작원은 명말 문인 미만종이 해정의 지형과 수계를 활용해 조성한 원림이다. 주덕윤은 원대 인물이어서 작원의 조영 주체로 볼 수 없다.
③ O: 작원에는 큰 연못과 정방이 있었고, 굴절된 다리 요소가 함께 나타나 수경 중심의 공간 구성이 확인되므로 맞다.
④ O: 작원은 태호석을 활용한 가산과 물가의 양류 식재로 경관을 구성한 원림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100묘'라는 익숙한 사실이 앞에 있어 뒤의 조영자 진술까지 함께 맞다고 넘기기 쉽다. 이 문항은 면적보다 조영 주체의 시대와 인물을 정확히 대조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원림사 문항은 위치와 경관요소는 그대로 두고 조영자만 다른 시대 인물로 바꾸는 방식이 자주 나온다. 먼저 원주인, 조영 시기, 대표 경관요소를 한 묶음으로 대조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작원은 미만종, 해정, 백묘, 수경, 태호석의 조합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일본의 헤이안시대 전기(前期) 원융이 조영한 정원으로 송도의 경관을 모방하여 연못 내에 작은 섬들을 배치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또한 못가에는 소금을 구워 연기가 솟아오르게 하여 해안경관을 연출하였다.

① 차아원(嵯峨院)
② 일승지관원(一乘止觀院)
③ 신천원(神泉苑)
④ 하원원(河原院)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헤이안시대 정원의 조영 주체와 해안 경관 연출 요소를 단서로 정원 명칭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河原院은 헤이안시대 전기 원융이 조영한 정원으로, 해안 경관을 옮기기 위해 연못 속 섬과 소나무를 두고 소금을 구워 연기를 내는 연출로 알려져 있다.
嵯峨院은 사가천황의 이궁 계열 공간이다.
一乘止觀院은 비예산 연력사의 근본중당 옛 이름이다.
神泉苑은 평안경 조영과 함께 마련된 궁중 부속 정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嵯峨院'이다. 嵯峨院은 사가천황의 이궁 계열 공간으로 보기의 핵심 단서인 원융 조영, 연못 속 섬 배치, 소금 연기로 해안 경관을 연출한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河原院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一乘止觀院'이다. 一乘止觀院은 연력사 근본중당의 옛 이름으로 사찰 명칭이지, 보기처럼 원융이 조영한 해안 모방 정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河原院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神泉苑'이다. 神泉苑은 평안경의 궁중 부속 금원으로 유명하지만, 보기의 결정 단서인 원융과 소금 연기 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河原院이다.
④ O. 河原院은 원융이 조영한 정원으로, 해안 풍경을 본떠 연못 안의 섬과 소나무를 두고 소금을 구워 연기를 내어 바닷가 분위기를 재현한 설명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嵯峨院과 神泉苑도 모두 헤이안시대의 유명한 정원이라서 시기만 보고 고르면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원융', '연못 안의 작은 섬', '소금 연기', '해안 경관 연출'의 조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헤이안 정원 문제에서 원융이 나오고 해안 풍경을 옮기기 위해 소금을 구워 연기를 냈다는 단서가 붙으면 河原院으로 판단한다. 사가천황의 이궁이면 嵯峨院, 궁중 부속 금원이면 神泉苑, 연력사 옛 이름이면 一乘止觀院으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원융 + 해안 경관 모방 + 소금 연기 = 河原院이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중국 황가원림(皇家園林)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북경 서북 교외에 위치한 (가)는(은) 이화원과 함께 (나) 황가원림의 대표로 꼽힌다. 이 원림에서 가장 큰 호수인 (다)는(은) 너비가 약 600m 정도이며, 크고 작은 호수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수계를 이루고 있다. 1949년에 증설된 (라) 권역은 해안당, 해기취, 서양루 등 유럽풍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① (가) - 정명원(靜明園)
② (나) - 청나라
③ (다) - 복해(福海)
④ (라) - 장춘원(長春園)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원명원, 정명원, 복해, 장춘원처럼 서로 비슷한 청대 황가원림 관련 고유명사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명원은 북경 서북 교외에 있던 청대 대표 황가원림이다. 정명원은 옥천산 일대의 별도 원림으로 원명원과 다른 정원이다. 복해는 원명원에서 가장 큰 수면이며, 장춘원은 원명원 계열 권역 중 서양루 등 유럽풍 경관이 조성된 구역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가)-정명원'이다. 보기의 설명은 이화원과 함께 대표적인 청대 황가원림으로 꼽히고, 가장 큰 호수 복해와 장춘원 서양루 구역을 가진 원명원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가)-원명원(圓明園)'이다.
② O. 원명원은 이화원과 함께 청나라 황가원림의 대표 사례로 묶인다. 따라서 '(나)-청나라'는 맞다.
③ O. 보기의 '너비가 약 600m 정도인 가장 큰 호수'는 원명원의 복해를 가리킨다. 따라서 '(다)-복해(福海)'는 맞다.
④ O. 해안당, 해기취, 서양루 같은 유럽풍 정원이 조성된 곳은 원명원의 장춘원 권역이다. 따라서 '(라)-장춘원(長春園)'은 맞다.

오답 포인트

정명원과 원명원은 이름이 비슷해 쉽게 바뀌기 쉽다. 그러나 복해, 장춘원, 서양루라는 단서가 함께 나오면 대상은 정명원이 아니라 원명원으로 좁혀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황가원림 문제는 정원명만 외우기보다 내부 단서부터 확인하면 된다. 복해가 나오면 원명원, 서양루가 나오면 장춘원 권역, 이화원과 함께 거론되면 청대 북경 서북 교외의 대표 원림이라는 연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명원-복해-장춘원 서양루로 묶고, 정명원은 별개의 옥천산 원림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12. 영암 서석지(瑞石池) 내 경석의 이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유석(僊遊石)
② 낙성석(落星石)
③ 반타석(盤陀石)
④ 분수석(分水石)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양 서석지 연못 안 경석들의 실제 명칭을 기록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서석지는 석문 정영방이 조성한 정원으로, 연못 안에 솟은 60여 개의 서석 가운데 일부에 이름이 붙어 전한다. 그 명칭은 정영방의 문집과 후대의 서석지 기록을 통해 전거가 확인되며, 선유석·낙성석·분수석은 이 기록에 보이는 경석명이다. 반면 반타석은 서석지 경석명 전거에 보이지 않고, 도산(퇴계 이황의 도산서당 일원) 일대의 명석으로 더 잘 알려진 이름이어서 서석지 경석명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선유석은 서석지에 이름이 전하는 경석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선유석(僊遊石)을 서석지 경석명으로 보는 것은 옳다.
2번: O. 낙성석은 서석지 기록에 전하는 경석명으로, 떨어진 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전한다. 따라서 낙성석(落星石)은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반타석(盤陀石)이다. 반타석은 서석지 경석명 전거에 보이지 않으며, 본래 도산(퇴계 이황의 도산서당 일원)에 전하는 명석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서석지 경석명에 실재하는 것은 선유석·낙성석·분수석·와룡암 등이므로, 반타석을 서석지 경석명으로 보는 진술은 틀리다.
4번: O. 분수석은 서석지 기록에 전하는 경석명 가운데 하나로, 물길이 갈라지는 지점과 연결되는 이름으로 전한다. 따라서 분수석(分水石)은 옳다.

오답 포인트

서석지 경석명은 한자식 명칭이 많아 다른 전통정원의 정원석 이름과 쉽게 섞인다. 3번의 반타석처럼 실재하지만 출처가 도산 일대인 명석 이름을 서석지 경석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경석 명칭 문제는 먼저 해당 정원의 기록(문집·정원기)에 실제로 전하는 이름인지 확인하고, 낯익지만 출처가 다른 정원의 명칭이 끼어든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서석지 경석명은 선유석·낙성석·분수석이고, 반타석은 도산 일대 명석으로 서석지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전과 영녕전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재궁과 향대청을 배치하였다.

② 상연지, 중연지, 하연지 총 3개의 지당이 있다.

③ 중연지의 지안은 자연석으로 쌓았고 못 가운데 섬에는 향나무를 식재하였다.

④ 『주례 고공기』의 좌묘우사 원칙에 따라 경복궁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종묘의 공간 구성과 지당 배치, 그리고 좌묘우사에 따른 입지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종묘는 정전·영녕전의 제향 공간과 재궁·향대청 등의 제례 준비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좌묘우사는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두는 원칙이며, 한양에서는 경복궁 동쪽에 종묘가 놓이고 서쪽에 사직이 놓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종묘의 중심은 정전과 영녕전이고, 재궁과 향대청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두 제향 영역을 중심으로 준비 공간이 함께 구성된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종묘에는 상연지·중연지·하연지의 3개 지당이 확인된다. 외대문 일원의 하연지, 향대청 일원의 중연지, 재궁 일원의 상연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③ O. 중연지는 향대청 일원에 있는 연못으로, 자연석 석축의 지안과 못 가운데 둥근 섬, 그 섬의 향나무 식재가 특징이다. 제례 공간의 엄숙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경복궁의 서쪽'이다. 좌묘우사 원칙에서 종묘는 궁궐의 왼쪽, 즉 동쪽에 둔다. 올바르게는 '경복궁의 동쪽에 배치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좌묘우사의 '좌'와 '우'를 지도의 좌우로 단순 치환하면 틀리기 쉽다. 전통 궁궐 배치는 임금이 남면하는 기준이므로 좌는 동쪽, 우는 서쪽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묘 관련 선지는 먼저 제향 공간과 준비 공간을 나누고, 다음으로 좌묘우사에서 종묘는 동쪽, 사직은 서쪽이라는 방향 기준을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종묘는 동쪽, 사직은 서쪽, 정전·영녕전은 제향, 재궁·향대청은 준비 공간이다.

NoteBase

문 14. 담양 명옥헌 원림(潭陽 鳴玉軒 園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중기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곳을 그의 아들이 조영하였다.

②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형 건물로, 남동향으로 배치되었다.

③ 2개의 방지중도형 연못이 있으며, 송림과 배롱나무가 주변에 식재되었다.

④ 상지의 위쪽 계류에는 '명옥헌계축'이라는 암각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담양 명옥헌 원림의 조성 경위, 정자의 방향과 규모, 상지·하지의 구성 같은 공간 특성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명옥헌 원림은 오희도가 자연을 벗하며 살던 터를 바탕으로 아들 오이정이 정자와 연못을 조성한 별서정원이다. 핵심 표지는 북향의 정자,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을 둔 방지중도형의 상지·하지 두 연못, 배롱나무와 적송, 계류 암벽의 '명옥헌계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명옥헌 원림의 시작은 오희도가 이곳에서 자연을 벗하며 살던 데 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오이정이 명옥헌을 짓고 아래위에 못을 파 꽃나무를 심어 가꾼 것으로 전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남동향으로 배치되었다'이다. 명옥헌은 연못을 바라보도록 북향으로 서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북향으로 배치되었다'이다.
③ O. 명옥헌 원림은 상지와 하지의 두 연못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두 연못 모두 네모난 못 안에 둥근 섬을 둔 방지중도형이어서 '2개의 방지중도형 연못'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맞다. 연못 주변에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하지 서측 외곽에는 적송이 있어 송림 경관을 이룬다.
④ O. 상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계류 수입구 암벽에는 송시열의 글씨로 전하는 '명옥헌계축' 각자가 남아 있다.

오답 포인트

정자의 칸수만 기억하고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②에서 규모 설명은 맞게 두고 방향만 '남동향'으로 바꾸어 놓아, 세부 배치를 정확히 외웠는지를 노린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원림 문제는 조성 주체, 정자의 방향과 규모, 연못 수와 형태, 암각·식재 수종처럼 장소를 식별하는 표지 정보를 먼저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명옥헌은 오이정 조영, 북향 정자, 상지·하지 두 연못, 배롱나무와 적송, 명옥헌계축으로 묶어 기억한다.

문 15. 한국 전통조경 포장 중 전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례의식에서 참가자들이 서는 위치를 표시하는 판위(版位)로 사용되었다.

② 바닥 포장에 쓰이는 전돌은 대부분 방형이고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③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우둘두둘한 표면으로 햇빛을 난반사시켜 땡볕에도 눈부심이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한국 전통 포장에서 전돌과 박석의 재료 성격, 표면 특징, 쓰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돌은 흙을 구워 만든 규격성 있는 단위 포장재이다. 제례 공간의 판위나 바닥 포장에 쓰이며 같은 크기의 부재를 반복 포설하는 성격이 강하다.
박석은 넓고 얇은 자연석 포장재이다. 표면을 거칠게 두어 햇빛을 난반사시키고 미끄럼과 눈부심을 줄이는 성격이 핵심이다.
판위는 제례 때 참가자가 서거나 절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례의식에서 참가자들이 서는 위치를 표시하는 판위를 전돌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판위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전돌의 실제 쓰임과 맞다.
② O: 바닥 포장에 쓰이는 전돌은 자연석 박석처럼 크기가 제각각인 재료가 아니라, 대체로 방형의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포설하는 단위재이다. 따라서 '대부분 방형이고 일정한 크기'라는 설명은 옳다.
③ O: 전돌은 같은 크기의 규격재를 반복 배치하는 방식이므로 현장에서 맞추어 깔기 쉽다. 자연석을 일일이 다듬어 맞추는 포장보다 조립성이 좋다는 점에서 이 설명도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우툴두툴한 표면으로 햇빛을 난반사시켜 땡볕에도 눈부심이 없다'는 표현이다. 이는 전돌이 아니라 박석의 대표적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우툴두툴한 표면으로 햇빛을 난반사시켜 눈부심을 줄이는 것은 박석의 특징이고, 전돌은 규격성 있는 단위 포장재로 쓰인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전돌과 박석을 뒤섞는 함정을 놓았다. 전돌은 '규격화된 벽돌형 포장재', 박석은 '거친 표면의 자연석 포장재'라는 차이를 놓치면 ④를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특히 '난반사'와 '눈부심 감소'는 박석 쪽 키워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포장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재료가 흙을 구운 규격재인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은 석재인지부터 가른다.
규격성과 반복 포설이 핵심이면 전돌, 거친 표면과 난반사·미끄럼 방지가 핵심이면 박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전돌 = 규격 벽돌형 단위 포장재 / 박석 = 거친 자연석, 난반사로 눈부심 감소이다.

NoteBase

문 16. 고려의 역대 군왕 중 궁원과 이궁의 원림을 가장 많이 조성한 왕으로, 수덕궁(壽德宮)을 짓고 정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석가산을 쌓았으며, 정자를 많이 건립한 군주는?

① 문종(文宗)
② 공민왕(恭愍王)
③ 명종(明宗)
④ 의종(毅宗)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군주 가운데 수덕궁, 인공폭포, 석가산, 다수의 정자 건립으로 대표되는 원림 조성 업적을 의종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문종: 고려 전성기의 기반을 다진 군주이지만 문제의 핵심 키워드인 수덕궁·인공폭포·석가산과 직접 연결되는 군주가 아니다.
공민왕: 반원 자주정책과 개혁 정치가 대표 이미지이며 문제의 원림 조성 기록과 연결되지 않는다.
명종: 무신정권기의 군주로 문제에서 묻는 궁원·이궁 원림 조성의 대표 군주로 보기 어렵다.
의종: 수덕궁을 짓고 정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며 석가산을 쌓고 정자를 많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군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문종'이다. 문종은 문제의 단서인 수덕궁, 인공폭포, 석가산, 다수의 정자 건립과 연결되는 군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 업적은 의종과 연결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공민왕'이다. 공민왕의 대표 이미지는 개혁 정치와 대외 관계 정비이지, 문제에서 제시한 궁원과 이궁의 원림 조성 기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수덕궁과 인공폭포, 석가산 조성은 의종과 연결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명종'이다. 명종은 무신정권기 군주로서 문제의 조경사적 키워드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해당 원림 조성 업적의 주체는 의종이다.
④ O: 의종은 궁원과 이궁의 원림을 많이 조성한 고려 군주로, 수덕궁을 짓고 인공폭포를 조성하며 석가산을 쌓고 정자를 많이 건립한 인물로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왕 이름만 보고 시대 순서로 접근하면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은 정치사보다 조경사 키워드 연결 문제이므로 '수덕궁-인공폭포-석가산-정자'의 묶음을 의종에 바로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조경사에서 특정 군주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설 키워드를 묶어서 본다. 수덕궁, 인공폭포, 석가산, 다수의 정자 건립이 함께 나오면 의종을 우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의종 = 수덕궁 + 인공폭포 + 석가산 + 정자 건립의 군주이다.

NoteBase

문 17. 조선시대 서원 명칭과 부속건물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동서원(道東書院) - 풍영루(風詠樓)

② 병산서원(屛山書院) - 만대루(晩對樓)

③ 옥산서원(玉山書院) - 무변루(無邊樓)

④ 필암서원(筆巖書院) - 확연루(廓然樓)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주요 서원과 대표 누각·문루의 명칭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도동서원의 출입 누문은 수월루이다.
병산서원의 대표 누각은 만대루이다.
옥산서원의 문루는 무변루이다.
필암서원의 정면 누문은 확연루이다.
풍영루는 함양 남계서원의 누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도동서원의 출입 누문 명칭은 풍영루가 아니라 수월루이다. 풍영루(風詠樓)는 함양 남계서원의 누각으로, 도동서원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도동서원-풍영루의 연결은 틀리며 이 선지가 가장 옳지 않다.
2번: O. 병산서원의 대표 누각은 만대루이다. 병산서원 공간 구성에서 만대루는 서원의 상징적 문루이자 경관 감상의 중심 건물로 연결된다.
3번: O. 옥산서원의 부속 누각은 무변루이다. 옥산서원 무변루는 별도 문화유산 명칭으로도 확인되는 핵심 건물이다.
4번: O. 필암서원의 정면 누문은 확연루이다. 확연루를 지나 강당인 청절당으로 이어지는 전학후묘 배치가 필암서원의 기본 구성이다.

오답 포인트

도동서원과 풍영루처럼 실제 서원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누각 이름을 다른 서원에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누각이지 도동서원의 것이 아니다. 대표 서원 이름만 기억하고 부속 건물 명칭까지 묶어 두지 않으면 1번 같은 오답에 걸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원 문제는 서원명 하나만 외우지 않고 정문·문루·강당 같은 대표 건물을 한 묶음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낯선 연결이 보이면 익숙한 대표 건물 조합인지부터 먼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동-수월루, 병산-만대루, 옥산-무변루, 필암-확연루로 묶고, 풍영루는 남계서원으로 따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8. 고구려 시대 궁궐과 궁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성에는 고구려 초기에 궁원을 맡아보는 관직이 존재하였다.

② 홀승골성은 동명왕 때 졸본 지역의 너른 지형을 이용한 평지형 석성(石城)이다.

③ 평양성 남쪽 궁전과 서문 사이에는 인공산과 연못을 조성하고 괴석과 정자를 배치하였다.

④ 상경용천부 동쪽 궁원에는 연못을 판 흙으로 2개의 가산을 만들어 8개의 정자를 세웠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구려 궁성·궁원의 유적 특징을 다른 시대 유적이나 다른 성격의 도성 요소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국내성: 고구려 초기 수도이며, 유리왕 때 궁원을 맡아보는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홀승골성: 졸본 시기의 첫 왕성과 연결되는 산성 계열 유적으로 이해한다.
안학궁: 고구려 평양기의 대표 궁궐 유적으로 궁원, 연못, 조산, 괴석, 정자터가 확인된다.
상경용천부: 고구려가 아니라 발해의 수도 유적으로, 궁성 동쪽 정원에 인공 연못과 섬, 8각 정자터가 확인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국내성으로 천도한 직후 유리왕이 간언한 협부를 궁원을 맡는 직으로 돌렸다는 기록이 전하므로, 고구려 초기에 궁원 관리 관직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설명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평지형 석성"이다. 홀승골성은 보통 오녀산성과 연결되는 산성으로 이해한다. 올바르게는 홀승골성은 졸본 지역의 초기 왕성 체계에서 산성적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본다.
3번 X: 틀린 표현은 "평양성"이다. 남쪽 궁전과 서문 사이의 정원, 인공산, 연못, 괴석, 정자터라는 설명은 평양성 일반보다는 고구려 안학궁 궁원 설명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안학궁의 궁원 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번 X: 틀린 표현은 "고구려 시대"에 연결한 점과 "8개의 정자"이다. 상경용천부는 발해의 수도 유적이며, 동쪽 궁원은 연못 흙으로 두 개의 섬을 만들고 그 위에 8각 정자터가 확인되는 곳이다. 올바르게는 발해 상경용천부 동쪽 궁원에는 인공 연못과 두 섬, 8각 정자터가 있었다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홀승골성의 산성 여부, 안학궁과 평양성의 명칭, 발해 상경용천부의 유적 특징을 한 문제 안에서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특히 4번은 "8개의 정자"와 "8각 정자"를 바꿔 놓아 암기만 하면 쉽게 속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궁원 문제는 먼저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유적 이름과 대표 키워드를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국내성은 초기 기록, 홀승골성은 산성, 안학궁은 고구려 궁원, 상경용천부는 발해 궁원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국내성은 초기 궁원 관직, 홀승골성은 산성, 안학궁은 고구려 궁원, 상경용천부는 발해 궁원과 8각 정자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길도지(甫吉島識)』에 기록된 거북 모양의 귀암은 일제강점기에 유실되었다.

② 동천석실은 낙서재로부터 북쪽 방향의 안산 중턱에 위치한다.

③ 곡수당 권역에는 격자봉 계곡의 물을 판석보로 막아 연못을 조성하였다.

④ 세연정 회수담 연못에는 나무 홈통에 물길을 연결 하는 비구(飛溝)를 설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권역별 공간 배치와 수경시설의 소속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세연정 권역, 낙서재·곡수당 권역, 동천석실 권역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세연정 권역은 판석보·세연지·회수담 같은 수경 연출이 핵심으로, 격자봉 계곡 물을 판석보로 막아 세연지를 만들고 그 물이 회수담으로 흘러 들어가며 흡수구 다섯·배출구 셋의 오입삼출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한다. 낙서재·곡수당 권역은 거처와 생활 공간이고, 동천석실은 낙서재 건너편 산 중턱의 조망·은거 공간으로 도르래(용두암)와 비구처럼 물길을 끌어 올리거나 흘려보내는 장치가 전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유실되었다"이다. 『보길도지』에 기록된 거북 모양 귀암은 일제강점기에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이관의 건물 개축 때 낙서재 일대에 매몰되었다가 2011년 발굴조사로 낙서재 정북 약 14.6m 지점에서 확인된 바위이다. 따라서 사라진 시점과 경위를 "일제강점기 유실"로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② O. 동천석실은 낙서재 건너편 북쪽 방향 산비탈의 중턱 절벽 바위 위에 자리한 공간으로, 보길도 원림에서 조망과 은거의 성격을 지닌다. 위치 설명이 원림의 공간 구성과 맞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곡수당 권역"이다. 격자봉 계곡의 물을 판석보로 막아 연못을 조성한 시설은 세연정 권역의 세연지·회수담과 관련된 설명이다. 곡수당 권역은 낙서재 주변의 생활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세연정 회수담 연못에는 … 비구(飛溝)를 설치하였다"이다. 회수담은 세연지에서 판석보를 거친 물을 받아 흡수구 다섯·배출구 셋의 오입삼출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곳이다. 나무 홈통에 물길을 연결하는 비구나 도르래(용두암) 같은 장치가 전하는 곳은 회수담이 아니라 동천석실 권역이므로, 비구를 세연정 회수담의 시설로 보는 것은 소속이 어긋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물길 시설을 언급하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판석보와 회수담은 세연정 권역의 장치이고 비구는 동천석실 권역의 장치이다. ①도 "유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귀암은 개축 때 매몰되었다가 발굴로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유실"이라는 표현이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길도 원림 문제는 먼저 권역을 나눈 뒤 시설을 대응시키면 된다. 세연정은 판석보·세연지·회수담(오입삼출), 낙서재·곡수당은 거처와 생활 공간, 동천석실은 산 중턱의 조망 공간이자 비구·도르래 장치로 잡으면 선지의 소속 오류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세연정은 물(판석보·회수담), 낙서재·곡수당은 삶, 동천석실은 산중 조망과 비구·도르래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20. 창덕궁 후원의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요정(逍遙亭)의 현판의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라는 명문을 통해 정조의 군주(君主)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옥류천(玉流川) 지역에 소요암(逍遙巖) 앞쪽을 둥글게 홈을 파서 평평한 바닥에 샘물이 돌아 흐르게 한 뒤,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③ 왕은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궁궐 안에 논을 조성하였는데, 그 흔적을 청의정(淸漪亭)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애련정(愛蓮亭) 지역에는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의미의 아치형 돌인 불로문(不老門)이 위치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창덕궁 후원 주요 공간인 소요정·옥류천·청의정·애련정의 위치와 상징 요소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요정·소요암 일대는 옥류천의 유상곡수 경관을 이루는 공간이다. 청의정은 초가지붕 정자와 그 앞의 논으로 애농적 상징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애련정 일대의 불로문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 석문이다.
만천명월주인옹자서는 소요정이 아니라 존덕정과 연결되는 정조의 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소요정의 현판의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이다. 만천명월주인옹자서는 정조가 지은 글이며 현전하는 현판은 존덕정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바르게는 '존덕정의 현판인 만천명월주인옹자서를 통해 정조의 군주관을 읽을 수 있다'이다.
② O. 옥류천 구역의 소요암은 바위 앞쪽에 홈을 파서 샘물이 돌아 흐른 뒤 떨어지도록 만든 곳이다. 소요암과 옥류천의 조성 방식 자체를 설명한 내용이므로 맞다.
③ O. 청의정 앞에는 궁궐 안의 논 흔적이 남아 있어 농사의 중요성과 풍년 기원의 상징성을 보여 준다. 청의정이 초가지붕 정자이면서 논과 결합된 공간이라는 점과도 맞는다.
④ O. 불로문은 애련정·애련지 권역에 있는 아치형 석문으로, 이름 그대로 '늙지 않음'의 뜻을 지닌다. 애련정 지역의 대표 상징물 설명으로 맞다.

오답 포인트

후원에는 정자와 현판, 상징물이 여러 권역에 흩어져 있어 이름만 알고 위치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소요정과 존덕정, 애련정과 불로문처럼 서로 다른 권역의 요소를 한 문장에 섞어 놓는 방식이 대표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원 관련 선지는 먼저 공간 이름을 권역별로 묶어 본다. 소요정은 옥류천과 소요암, 청의정은 논과 초가지붕, 애련정은 애련지와 불로문, 존덕정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처럼 대표 짝을 맞추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만천명월주인옹자서=존덕정, 소요정=옥류천·소요암, 청의정=논, 애련정=불로문이다.

NoteBase